

셀 모임 순서지 (2025년 12월 넷째 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나의 2026년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Worship - 찬양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축복의 중요성(민수기 6:22-27)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광야 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마음에 품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복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세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인이십니다. 이 땅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큰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멜기세덱의 축복 :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축복기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고, 능력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축복 :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기도를 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축복을 받는 겸손한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을 듣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축복 : 인생은 무서울 정도로 축복기도대로 됩니다. 축복기도를 받은 야곱과 그 후손은 그 기도대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해 주셨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당신이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산다면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닌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2. 적용

- 1) 지금 내 인생의 '광야'는 무엇이며, 그 광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로 반응하고 있나요?
- 2) 나는 매일 누구에게서, 혹은 누구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쌓고 있나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2. 2026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거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KaMU

최봉춘 / 정수철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요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2. 예쁜 새들 - 노래하는 아침 - 과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3. 못된 짐승 - 나를 해치 못하 - 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 리
 푸른 풀밭 - 맑은 시냇물가 - 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다
 사랑 하는 - 나의 목자 음성 - 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 다
 나의 주님 - 강한 손을 펼치 - 사나를 주아로 지켜 주신 다
 주는 나 - 의 종은 목자 나는 그 - 의 어린 양 -
 철을 따라 -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